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
 “모두의” 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 구성원 구독자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
 세계의술의(은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뜻할 溫, 평온할 穩,
 병을癒 포함 온은 (거리적·시간적으로) “진보하여” 라는 의미

온

2016.
vol.4

온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ON
Vol 4, Spring 2016

발행일 2016. 4월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주소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고개로 249
전화 063-223-5651 팩스 063-224-0799 누리집 jeonju.museum.go.kr
디자인 • 제작 디자인노리

CONTENTS

관장 칼럼

잊혀진 서예가,
석전石顚과 탄허呑虛

p 04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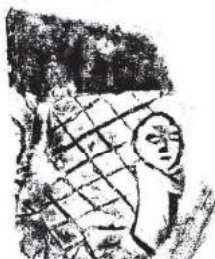
'익산 쌍릉'을 다시 생각하며

p 08

발굴조사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도성 추정지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터

p 22



박물관 사람들

유물관리팀 소개
유물관리팀 학예연구원 인터뷰

p 40



지상강의

에르미타주박물관
큐레이터 예브게니 키

p 50

상설전시실 소개

고고실 새롭게 단장하다

p 54

CONTENTS

이야기마당

전시품이야기
옛날 사진 이야기
문학작품 속 음식이야기
영화이야기

p 62



내가 찾은 박물관

여명카메라 박물관 이모저모
여명카메라 박물관 학예연구사 인터뷰

p 76



전시리뷰

항병근 선생
기증유물 특별전

p 86

문화나눔

예정 전시 소개
교육 프로그램
야간개장 프로그램

p 94

국외박물관

중국 소주박물관
p 88



전북 박물관 전시
및 행사

박물관 캘린더

p 102



석전스님 (선운사성보박물관 소장)

잊혀진 서예가, 석전石顛과 탄허呑虛

전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향(書鄉)이다. 오랫동안 서맥(書脈)이 도도하게 이어져 왔고, 조상들이 남긴 흔적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여러 활동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전북을 문향(文鄉)이나 예향(藝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히려 ‘서향(書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북의 서맥은 백석(白石) 유즙(柳楫, 1585~165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뒤를 이어 창강(滄江) 조속(趙洑, 1595~1668), 송재(松齋) 송일중(宋日中, 1632~1717),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0~1910)이 전주와 김제에서 명필로 활동하였다. 20세기를 넘나들면서도 창암 이삼만과 석정 이정직의 서맥을 잇는 수많은 제자들이 전북 서단(書壇)의 큰 줄기를 이루어 나갔다. 예컨대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 1854~1935),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탄허스님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1882~1956), 설송(雪松) 최규상(崔圭祥, 1891~1956), 운호(雲湖) 김정기(金正基, 1904~1951)와 같은 이들이다. 그중에서도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3)과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1913~1999)은 제각기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며 전북뿐만 아니라 한국서단의 거목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서맥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뿌리를 내린 전북의 서단은 1990년대부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즉 전국적인 서예전의 개최, 원광대 서예과의 설립, 서예 학술재단의 설립을 이룩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서예관이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으며, 서예를 테마로 삼은 국제적인 행사인 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서예협회와 각종 서예동호회의 활동상도 눈이 부실 정도이다. 이와 같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서맥과 그 활동 모습은 전북 내 도로, 문화유적, 음식점과 숙박업소, 공방에 이르는 각종 현판(懸板)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향(書鄕)으로서의 전북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잊혀진 서예가도 있는 것 같다. 바로 전북 출신 고승(高僧)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석전(石顚, 1870~1948)과 탄허(呑虛, 1913~1983) 스님을 들 수 있다. 먼저 석전 스님은 전북 완주의

중농 가문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일찍부터 학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서 이미 17세에 학동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할 정도였다. 그가 청소년기에 쌓은 유학적 소양은 육당 최남선, 위당 정인보, 춘원 이광수 등과 더불어 교류할 수 있는 대학승(大學僧)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게다가 천의무봉(天衣無縫)한 성품까지 더해져 많은 글과 시문을 유묵(遺墨)으로 남겼다.

그리고 탄허 스님은 독립운동가인 율제(栗齊) 김홍규(金洪奎, 1888~1959)의 둘째 아들로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한학자(漢學者)인 조부와 부친, 그리고 고을의 선생으로부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유학(儒學)의 전 과정을 마쳤다. 입산하기 전에 도교에 대한 깊은 공부도 하였으며, 출가하여 수행에 힘쓰면서 불가(佛家)의 공부에도 크게 진전을 이루어 20대 중반에 이미 유불선(儒佛仙)에 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석학으로서의 학식과 선승(禪僧)으로서의 깨달음을 수많은 유묵으로 남겨 놓았다.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이 전북이다. 마신 물이 전북의 우물이며, 먹은 음식이 전북의 고을 음식이다. 어울린 학동들이 전북의 청소년이고, 배운 공부는 전북의 스승으로부터 얻은 한학(漢學)이다. 즉 그들의 근본은 전북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예로부터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 하여, 글씨는 곧 사람의 인품과 교양, 학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글씨에 대한 연마는 결코 소홀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서풍(書風)이 도도하던 전주

인근에서 살았으니 청소년기부터 한문으로 서책(書冊)을 읽고, 시문(詩文)을 지으면서 문기(文氣)가 넘치는 전복의 서예를 익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글씨에는 전복의 서풍이 깃들어져 있다.

석전과 탄허 스님이 남긴 유묵은 불가에서 각각 ‘석전체(石顚體)’와 ‘탄허체(呑虛體)’로 불릴 만큼 생전에 이미 글씨에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철저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독특한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하였다. 그 높은 깨달음의 경지, 즉 마음을 담안낸 것이 바로 그들의 유묵이다. 때로는 넘치는 격정과 개성을 담고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때로는 청정(淸澄)한 마음을 평온한 글씨로 표현하였다. 그들은 학승(學僧)으로 이름을 날리면서도 신라의 김생(金生, 711~791), 고려의 탄연(坦然, 1070~1159), 조선의 만우(卍雨, 1357~?)와 휴정(休靜, 1520~1604), 근대기와 일제강점기의 만공(滿空, 1871~1946)과 경봉(鏡峰, 1892~1982), 만해(萬海, 1879~1944)와 같은 명필 승려의 면모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불가의 학승 혹은 선승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전복이 남긴 명필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서단과의 교류나 정통 서예 공부가 미흡할지라도 그들의 학문적, 정신적 배경에는 엄연히 전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고려한다면, 한 번쯤 전복의 서예가로서도 기억해볼직하다.

‘익산 쌍릉’을 다시 생각하며...



익산 쌍릉 전경(1910년대)

신라 진평왕 때인 7세기 전반경, 신라의 왕실에는 여쁜 선화라는 공주가 있었다. 백제의 청년 서동은 그녀를 흠모하여 신라의 도읍인 서라벌의 아이들에게 밤마다 선화 공주가 자신을 몰래 만난다는 내용의 ‘서동요’를 퍼뜨린다. 얼마 후 이 노래를 듣게 된 진평왕은 공주를 귀향 보내고, 서동은 귀향가는 공주를 구출하여 백제로 데려가 결혼했다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나온다. 그 뒤 선화공주는 무왕의 왕비가 되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의 창건설화이기도 한 선화공주와 무왕의 러브스토리는 삼국시대 당시 서로 적대국으로서 전쟁을 했던 상황에서도 신라와 백제의 젊은이가 국경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나간다는 구성으로 국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유되기도 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선화공주의 존재는 ‘익산 쌍릉(사적87호)’에 구전으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100년전인 1917년 12월 10일 무렵, 일본인 야츠이세이이치(谷井濟一)를 비롯한 몇 명의 조선 총독부박물관 관계자들이 익산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삼국시대 백제와 마한의 유적에 대한 조사를 명분으로 익산 오금산(해발120m) 남서쪽 양지 바른 자락에 위치한 왕피라는 곳의 옛 무덤 두 기를 파내려 갔다. 익산 쌍릉을 발굴 조사한 것이다. 쌍릉의 발굴은 수일 만에 마무리 되었고, 그들은 예정된 다음 조사를 위해 급히 나주로 짐을 챙겨 떠났다. 조사위원인 야츠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의 합당한 근거를 찾기 위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쌍릉의 발굴을 기획하고 급히 진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쌍릉은 봉토와 석실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 되었다. 또한, 조사이후 출토유물의 정리와 보고서 발간 작업 등도 충실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간단한 보고서만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그 후 익산 쌍릉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소왕묘 전경(1910년대)



소왕묘 전경(현재)



대왕묘 전경(19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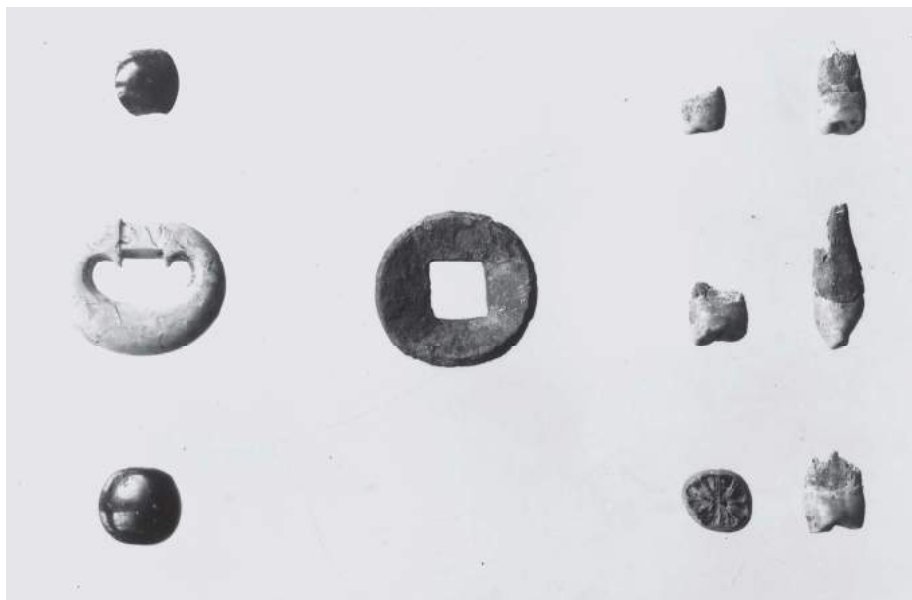
대왕묘 전경(현재)

다행히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미공개 자료 정리 및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쌍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2015년 말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17년에 이루어진 익산 쌍릉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발굴조사는 소왕묘(小王墓)와 대왕묘(大王墓)에 대해 진행되었고, 백제 사비시기(538~660년)의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과 여러 점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물은 금송(金松)으로 제작된 목관(木棺)을 비롯하여 목관을 장식한 금동제 목관장식구(鍍金透金具)와 부장유물인 토기(埴), 옥제 허리띠장식(玉製裝具) 등이 있다. 특히, 출토 유물 가운데 금송으로 만든 목관은 그런대로 발굴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삼국시대 백제 왕족이 사용하던 목관의 형태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목관 내부에서 발견된 피장자의 치아(齒牙)와 부장 유물인 옥제 허리띠장식과 토기는 대왕묘의 조성연대와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학계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듯 새롭게 진행된 ‘익산 쌍릉’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과 고고학 자료의 분석 결과는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왔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불명확하였던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분석 결과는 설화로만 전해오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진위에 초점이 모아져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내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크게 지면을 다루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발굴조사된 여러 자료 가운데 특히, 대왕묘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4점의 치아는 이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즉, 치아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분석을 통하여 성년(20세~40세)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쌍릉 대왕묘 피장자의 정체에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던 ‘무왕(武王 600~641년)’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전국의 언론과 세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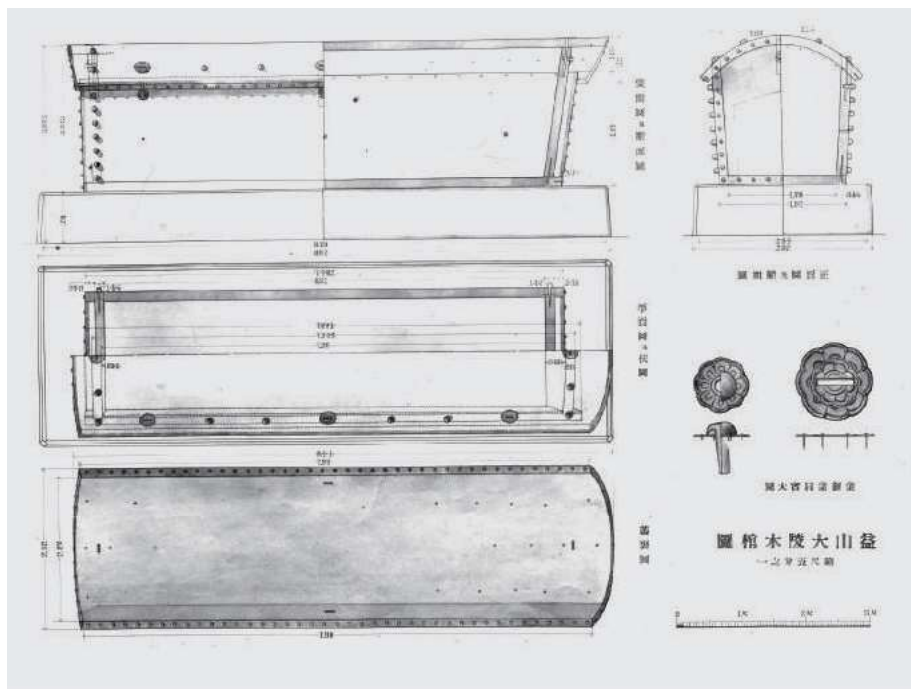
대왕묘 석실 내 목관 및 토기 출토 상태



대왕묘 출토_유리소옥, 옥제장구, 치아 등



대왕묘 출토_토기(罍)



대왕묘 목관 실측도

일찍이 익산 쌍릉은 『삼국유사三國遺事』 · 『고려사高麗史』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에 기록된 관련 자료들로 보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에는 마한의 왕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한 후에는 봉토 둘레 호석의 흔적과 고분축조에 사용된 석재, 그리고 대왕묘 내 출토 목관 등을 근거로 백제말기 왕족의 능묘로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광복 이후에는 『고려사』에 보이는 말통대왕(末通大王)이나 무강왕(武康王)을 백제의 동성왕(東城王 489-500)으로 비정(比定)하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쌍릉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백제 30대 무왕과 그 부인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정리되었고 현재는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쌍릉은 공주의 무령왕릉과 함께 고분의 주인공이 알려진 몇 안 되는 사례로서 백제 사비시기 익산과 중앙지배세력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영기(舍利奉迎記)와 연관하여 무왕대의 정치·사회사적인 관계 변화와 미륵사의 건립 의미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왕묘 출토_목관(상: 본체, 하: 뚜껑)



관뚜껑과 본체 결합 모습

그러나 쌍릉이 위치한 금마지역이 무왕과 관련된 기록과 백제 사비시기 관련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막연하게 대왕묘의 주인공을 ‘무왕’으로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사연구 방법이 아니다. 또한, 출토유물에 대한 사실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소왕묘를 『삼국유사』에 전하는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견해는 고고학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하며 학계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전승되어 기록된 부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대왕묘를 ‘무왕의 무덤’으로, 그리고 소왕묘를 ‘왕비의 무덤’으로 맞추어 가려고 하는 대세적인 연구경향과 이에 편승한 고고학적 분석 결과는 쌍릉의 축조시기와 피장자의 정체를 해결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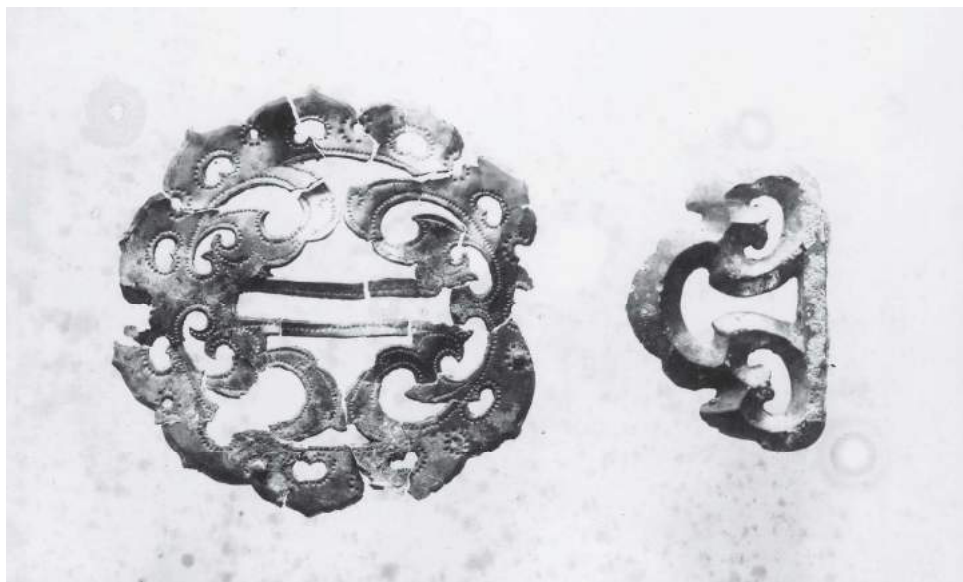


대왕묘 출토

1 목관장식구(鍍金座金具)

2 각종 관못

익산쌍릉에 대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발굴조사 기록과 유리건판 사진(琉璃乾板寫眞)을 근거로 조사내용을 기술하고, 출토된 유물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국립전주박물관의 이번 작업은 그 동안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익산 쌍릉의 주인공 문제와 백제의 익산지역 경영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학계에 제공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발굴조사 된 후 거의 100년 만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무왕과 선화공주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와 함께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익산 쌍릉은 향후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7세기 전반대 백제의 사회·정치사적인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소왕묘 출토

3 목관장식구(鍍金座金具)

4 관못

5 목관장식구편

6 목관장식구(鍍金透金具)



4



5



6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도성 추정지 발굴조사

작년 여름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에서 후백제 성벽을 발굴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성벽과 자연경사면을 이용한 오목대는 전주의 남쪽을 지키는 관문이자 요새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오목대 전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후백제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조사에서는 인근의 완산구 풍남동 지역의 ‘관官’명 기와, 각종 토기편, 기와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3년 『전주부사(全州府史)』 기록에 의하면 풍남동 일대는 후백제 도성 벽의 남서쪽에 해당된다. 그 위쪽은 후백제 내성으로 추정한 노송정 90-2번지가 위치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1-88호선 지방도로 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물출토지점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유물출토지에 대한 성격규명을 위하여 2015년 10월 시굴조사에 이어 12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 항공사진

조사지역은 승암산 줄기에서 뿔어 나온 발산(135m)에서 서쪽으로 꺾여 자만동과 오목대로 뿔어 내린 해발 55m내외의 낮은 구릉 말단부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다. 현재 르윈호텔 맞은편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 일찍이 1943년 『전주부사』에서 이야기 한 후백제 도성의 안쪽에 해당된다. 1992년 전영래 선생은 이 지역을 포함하여 외성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조사 전의 지형을 살펴보면 1948년 항공사진에는 논으로, 1965년 위성사진에는 건물지가, 그리고 2015년까지는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는 건물이 철거된 후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건물사이의 골목에는 도시가스관과 배수로 매설에 의해 문화층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발굴조사는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는 곳을 기준으로 A지구와 B지구, 두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크게 5개의 문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맨 아래 층에서는 통일신라~후백제 시대의 기와편이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문화층이 있었으며, 그 위층은 고려시대 사람들이 생활하던 문화층으로 청자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3층은 백자, 분청사기와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되는 조선시대 생활터가 나왔다. 그 위로 후대에 쌓인 퇴적층과 현재 건물이 철거된 뒤 덮인 폐건축자재 및 생활쓰레기 등이 포함된 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

- 1 조사모습
- 2 현장지도위원회의
- 3 건물지 전경
- 4 발굴조사 전경
- 5 시굴조사 전경

A지구와 B지구에서는 폭 1m, 동서 길이 12m 규모의 1단의 석축열이 확인되었는데, 조사결과 이 석축열은 남쪽 자만동의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북쪽의 낮은 대지에 흙이나 석축을 쌓은 다음 건물의 기단이나 대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건물지의 기둥 초석(礎石)이나 적심(積心)으로 볼 수 있는 대형석재 3~4개가 확인되었다. 이 시설은 고려시대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쪽에서 확인된 2개 적심시설과 연결하면 짧은 면은 2칸, 긴 면은 5칸인 건물지이다. 남쪽으로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가로 인해 조사가 불가하였다.



3



4



5



A지구 석축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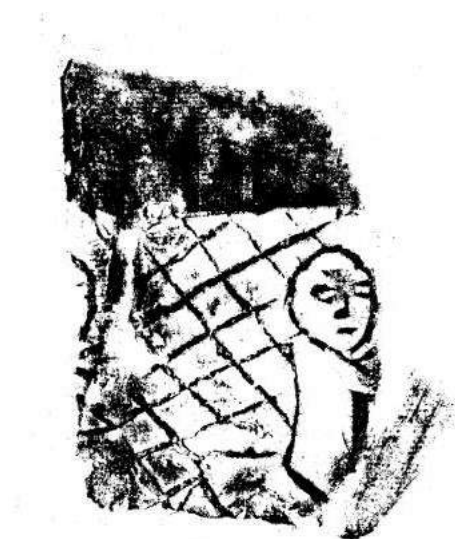
B지구 석축열
석축대지 아래에서 나타난 적심



출토유물_상감청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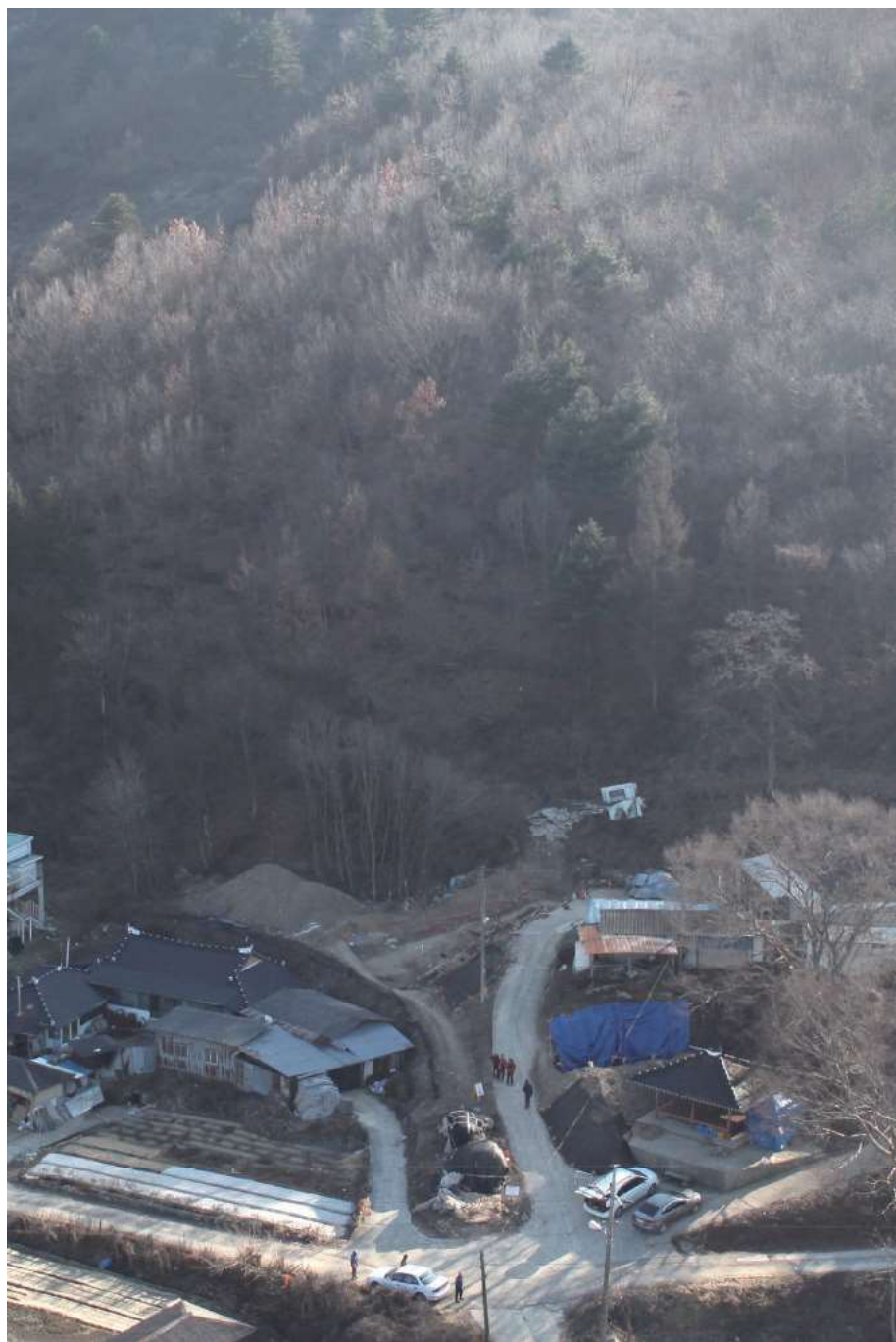
출토유물_동물장식이 붙은 뚜껑편



출토유물_인물문기와 탁본

이번 조사에서는 당초에 후백제 도성의 내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조사지에 인접해 있으나 후백제 도성 벽과 같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 내에서는 통일신라~후백제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1기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대지 2기가 확인되었다. A지구의 통일신라~후백제 시기의 건물지는 기둥간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방향도 북서 방향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건물지로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설로 본다면 최소 짧은 면 2칸, 긴 면 5칸 이상의 대형의 건물지로 특수한 목적의 건물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집선문 기와편이며, 변형 '관'명기와, 어골문기와 등 인근의 오목대와 후백제 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순천 해룡산성 등의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수많은 기와 편은 후백제의 중요한 연구 자료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주 시내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후백제의 흔적이 잠들어 있기에 향후 세밀한 조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 발굴 조사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는 1980년대 후반 학계에 대규모의 갑발(匣鉢)과 청자퇴적층이 있음이 보고되어 초기청자 가마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6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실시한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 조사』에서는 완(碗)과 대접류와 함께 갑발, 불에 탄 벽돌들이 수습되어, 1997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고려 초의 청자가마터로 소개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지표조사 이전에도 『전라북도지』, 『진안군사』 등에는 3기의 청자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이후 1990년대까지도 대규모 퇴적층에서 갑발과 청자류를

수습하여 외지로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이 청자가마가 학계에 주목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적의 위치 때문이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청자의 가마터는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가마터의 위치 자체가 가마의 대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조성되기 때문인데, 소비와 운송면에서 해안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초기 청자가마인 벽돌가마들과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진흙가마들 역시 대규모 수요층이 존재하는 개경(開京)에 대량 운송이 가능한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시흥 방산동, 부안 유천리, 고창 용계리, 강진 사당리 가마들이 만들어진 지역이 해안지역 근처라는 것에서도 위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쪽 요도구 퇴적층 양상(2014년 조사)



진흙가마 확인 모습(2015년 봄)



도토리 출토 명문갑발(2014년 조사)



도토리 출토 청자완과 갑발편(2014년 조사)

반면, 진안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는 기존 가마터와는 다르게 위치상으로 해안가가 아닌 내륙 깊숙한 산악지대인 진안고원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들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주요 소비처가 아님을 증명한다. 전북의 해안가 지역인 고창과 부안지역에서 고려의 청자문화가 화려하게 꽃 피었던 것은 편리한 해상 교통로를 통해 대규모 소비 집단이 위치한 개경으로의 운송이 용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는 이러한 루트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진안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의 운영 주체로서, 전주를 수도로 하여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세력을 일부에서는 거론하기도 한다. 호남정맥의 마치(馬峙)를 넘으면 전주에서 곧장 진안 도토리 · 외공리 초기청자 가마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3

1 가마 바닥 상면에 퇴적된 붉은 모래

2 연소실 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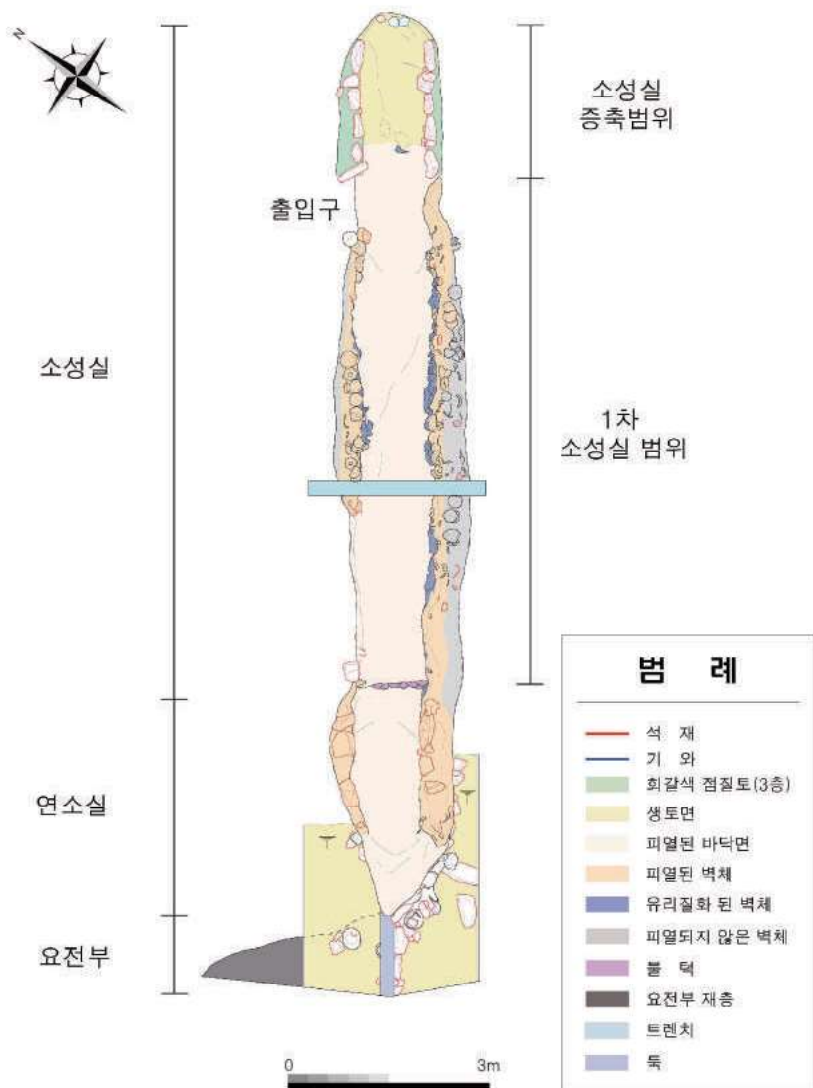
3 진흙가마 내벽 축조상태

한편,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가 학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지리적 위치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는 유적 주위에 벽돌가마일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벽돌편과 초기 청자완편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실시되지도 않았으며,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거의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의 최초 학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국립군산대학교 조사로서, 유적의 정확한 성격 규명과 유적의 파괴를 막기 위해 실시한 조사였다. 이어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의 조사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유적의 범위 확인을 위해서 실시되었다.



노출된 진흙가마 전경(항공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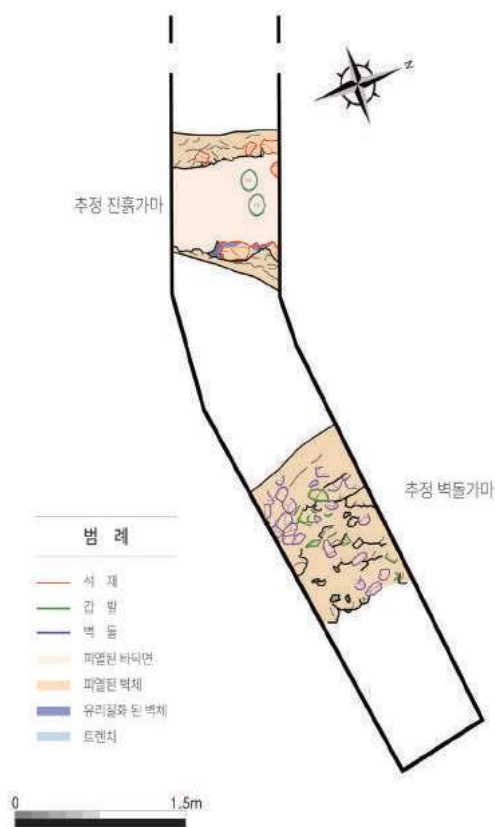
발굴조사 진흥가마 평면도



추정 벽돌가마 모습



추정 진흙가마 노출 모습



시굴조사 Tr. 내부 확인 추정 진흙가마 평면도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군산대박물관은 마을 모정 동쪽에 인접한 작은 길의 경사면과 평탄지에 대한 조사에서 대략 5m 깊이의 요도구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퇴적층의 바닥면에서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의 일부가 드러났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군산대박물관은, 2015년 봄에 확인한 가마 유구를 전면적으로 발굴조사 해 진흙가마(토축요) 1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모정의 윗부분의 시굴조사에서는 벽돌가마(전축요)의 흔적과 진흙가마 1기를 확인하였다.

2013~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학술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2015년 봄 퇴적층 하부에서 가마의 봉통부분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확인했는데, 가을조사에서 약 13.4m 길이인 진흙가마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인근의 시굴조사에서 진흙가마로 추정되는 유구와 함께 요도구와 벽돌편들이 밀집된 벽돌가마로 추정되는 가마 2기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진안 도토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초기의 청자가마인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조사에서 벽돌가마가 확인되면 그 벽돌가마의 조성시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자의 발생시기가 새롭게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가마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주목된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물관리팀 (I)

신상호 학예연구관





Q.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립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큐레이터는 지역·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박물관자료'의 확보·관리·보존·전시하고, 조사·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전공은 다르지만 업무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맡은 업무는 유물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유물관리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유물관리팀은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된 모든 유물과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집안의 공간을 채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장품 관리의 목적은 소장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도난과 손상을 방지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여 소장품의 잠재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소장품은 박물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 예술품, 민속품 등을 모으고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발굴·구입·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소장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에서 국가귀속 된 발굴매장문화재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증문화가 확산되어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이들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즉 박물관 자료의 모든 것에 호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장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분류, 감정, 수량 확인 등 유물의 상태나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복원이나 보존처리를 합니다. 등록대장에는 소장연유, 시대, 출토지, 함께 나온 유물, 성격, 재질 등 각기의 특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등록된 유물은 참고별, 보관장별 등 소재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입력하여 재질별로 보관되고 있으며 주요유물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박물관은 박물관 고유의 지명과 소재에 따른 분류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소장유물은 전주(全) 번호와, 황(黃) 번호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전주 번호 등록 유물에는 국가귀속 발굴·발견매장문화재를 비롯한 기증·구입 등 기타문화재가 있으며, 기증문화재 중 석전 황욱선생님의 작품은 황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장된 유물이나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특별전시를 열며, 전시도록이나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간행하여 학술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넷째, 소장된 유물이나 자료는 국내외 박물관에 대여하여 특별전시 등을 통한 상호교환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장된 모든 유물과 관련 자료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박물관에서 전문 분야를 갖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큐레이터는 흔히 '박물관, 미술관'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전시, 유물관리, 보존처리, 교육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학예, 소장유물관리, 교육, 보존, 박물관학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문가적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예사자격증도 따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물관리팀 학예연구원(I)

유철호 · 신숙현



Q. 전공 및 관심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철호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학부를 사학과 고고·미술사로 전공하였습니다. 학부 시절 개인적 관심 및 고적답사로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을 다녔는데, 우리 문화에 대해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학예연구사 선생님들의 모습에 반해 학예연구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였는데,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지역에 대한 사회,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숙현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어렸을 때부터 역사나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적 위주로 답사나 봉사도 많이 다녀왔었고 진학과 전공도 역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 전공과 적성에 대해서 한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였는데, 환경고고학 실습을 접하게 되면서 보람을 찾고 성실히 매진하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업, 패총, 동물고고학, 신석기시대를 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진로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철호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전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관리 업무 중에서 특히 미정리 유물 등록입니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진행되는 문화재조사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국가의 자산이므로 해당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보내진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맨 처음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사람의 출생신고와 비슷한 업무로 유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사진촬영으로 모습을 남기며, 개개의 특징들을 상세히 적어 국가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숙현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미정리 된 유물을 등록화 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발굴되어 온 유물들은 국가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관할 박물관으로 귀속돼 보존·관리·전시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유물을 인수받고 전주박물관 관할로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유철호

2015년 등록 작업을 했던 유물 중에 전주 장동유적에서 발굴되었던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전주 장동 유적은 제가 2006년 대학생 시절에 직접 발굴에 참여했던 유적이었는데, 등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적의 유물들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땅에서 흙이 묻은 채로 있던 유물을 수습하여 세척하고, 접합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신숙현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작년 12월에 신재근 학예연구사, 유철호 선생님과 함께 수장고에 들어가서 대형유물을 등록했던 작업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큰 토기들을 두 분이서 안전하게 들어 올려주시고 제가 재빨리 넘버링을 해야만 했던 일들, 중심 세우기도 버거운 유물들을 100번 넘게 들고 사진촬영을 하며 애먹었던 기억들과 함께 다음날 두 연구원들은 파스 붙이고 근육통을 호소했습니다.



Q.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유철호

올해는 박물관에서 미정리 유물등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전시업무를 했었습니다. 전시 업무는 준비하는 시간 동안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전시 오픈일이 가까워 올수록 주말에 상관없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보상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해 준비한 전시를 보면서 좋아해 주실 때 저도 덩달아 즐거워지면서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신숙현

내가 모르는, 혹은 잘 알거라 예상했는데 속성이 빛나간 유물들을 접하고 그 특징을 알아가게 될 때가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거나 보람찬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유물이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 접하는 유물마저도 전에 배워왔던 속성과 같을거라고 짐작을 하고 기술하게 됩니다. 그게 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서야 알아차리고 수정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거치다 보면 경험이 하나씩 쌓이게 되고 성장하는데 거름이 되기도 하고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Q. 유물관리 학예연구직을 전공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유철호

유물관리 학예연구직은 유물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유물에게 새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유물과 늘 함께 하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그 만큼 많은데, 나의 부주의함이 곧 유물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조심성입니다. 유물을 정말 좋아하고 아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숙현

내가 직접 일을 해 본 것하고 책이나 논문에서 접하는 지식하고는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한두 번쯤은 유물관리 학예연구직에서 일을 해보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학예연구사나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유물관리직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물을 다루는 법에서부터 임시이관이나 대여, 열람 같은 민원처리도 맡아 볼 수 있고, 인수과정이나 반환작업을 통해서 유물의 격납이나 포장, 해포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 출장을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연구원으로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에르미타주박물관 큐레이터 예브게니 키

Evgeniy A. KIY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와 지역 박물관 전문 인력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해외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마련된 인문학 특강으로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예브게니 키 큐레이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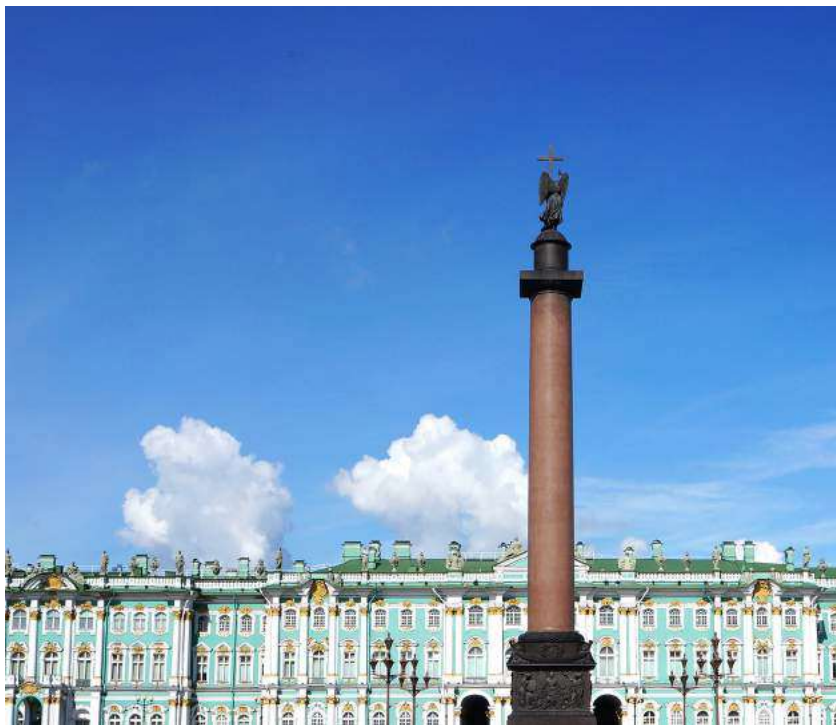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7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저는 전공을 중국 예술사 중에서 불교회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2~3년 정도 중국어 공부와 더불어 중국 예술 중 불교 예술을 전공한 후 세인트버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2009년부터 에르미타주박물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불교라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가 시각적인 형태에서 예술적으로 어떻게 발현(發現)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의 전문가들이 1~2명 정도로 전무합니다. 아마도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생소할 것입니다.



Q.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최대 박물관이기도 하고 보통 박물관이라는 곳이 갤러리 등 한정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는 발굴단, 고고학, 인문학, 예술, 사학, 신학 등 다양한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박물관입니다. 또한 300만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박물관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하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1919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황제가 항상 머물렀던 곳이 겨울궁전인데, 그 건물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물인 겨울궁전의 부속건물을 개조해 만든 것이 에르미타주박물관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있던 시대에 가지고 있던 여러 중요한 보물과 유물들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 특히 중앙아시아 미술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2개의 벽화가 있는데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베제클릭에서 출토된 석가모니 전생설화 2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 2차대전 때 독일 베를린에서 조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도 에르미타주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명인 알베르트 그륀베델(Albert Grünwedel)이 수집했던 신장위구르 지역 출토의 벽화가 있습니다. 러시아 발굴단 쪽에서 가지고 있던 유물들도 있지만 독일 베를린 폭격 때 알베르트가 소장했던 것들과 여러 컬렉션들이 에르미타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박물관에는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좋은 유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Q. <키르기스스탄 불교사원지 발굴의 결과>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매년 하계에 고고학 조사단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굴을 했는데 발표자는 여러 조사단 중, 특히 텐산(Tianshan, 天山) 조사단 탐사에 2011년부터 소속되어 참여했습니다. 텐산 조사단은 2010년부터 지난 하계 현장 조사까지의 주요 조사 대상이 2010년에 발견된 나베카트의 불교사원지 중 하나였습니다. 강연 내용은 주요 대상이었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불교 유적과 불교적인 조각, 불상 등 조사결과와 일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 방문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두 번째 방문인데 와서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단지 겨울이 춥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른 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2주 정도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러서 좋습니다. 저는 극동 쪽을 담당하는데 중국이나 대만을 많이 집중하다보니 일본이나 한국은 문화나 불교예술 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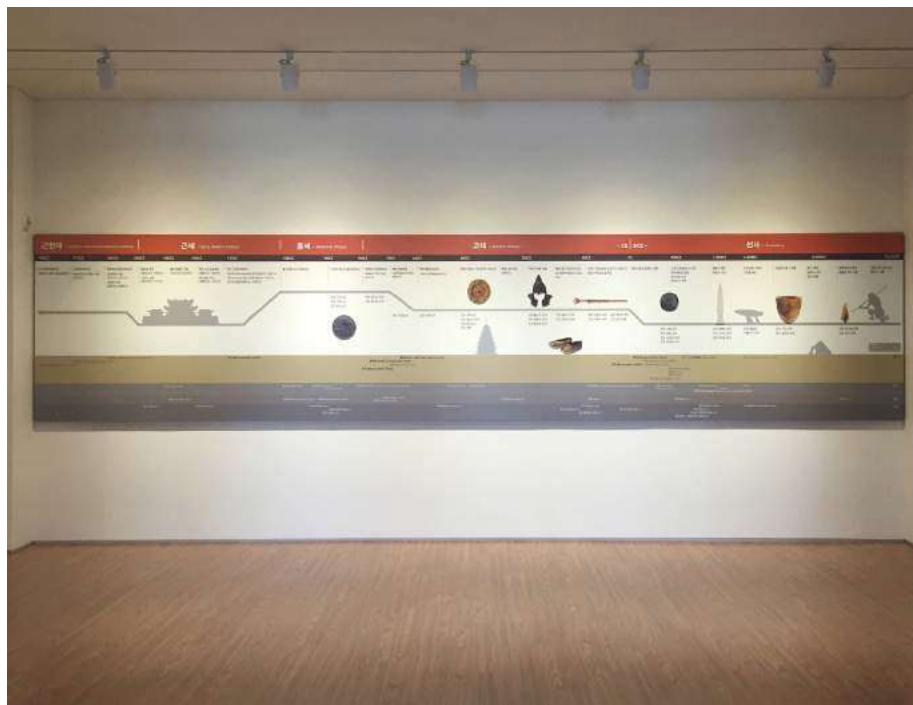
보통 한국의 많은 유물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하게 구분이 지어지는 한국만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어 좋습니다.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Gallery

고고실 새롭게 단장하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올해 2월 6일 새롭게 단장한 고고실을 관람객에게 전면 공개하였다. 이로써 2012년 기획전시실, 2013년 역사실, 2014년 미술실과 어린이박물관, 2015년 고고실을 마지막으로 4년에 걸친 상설전시실 개편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1990년에 개관한 이후 25년 만에 모든 전시실을 새단장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최고의 전시품과 전시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고고실 개편에서 가장 주목하여 볼 것은 기존의 전시품에서 최근에 새롭게 확인된 유물로 대폭 교체하였다는 점이 특히 전주·완주 혁신도시에서 최근에 확인된 완주 신평 유적의 국보급 잔무늬거울(精文鏡)과 장대투갑방울(靑銅竿頭鈴), 그리고 고창 봉덕리 1호분의 금동 장식 신발(金銅飾履)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벽면 전시 등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시 기법을 사용하여 전시 수량 또한 기존의 2배가 넘는 1,400여 점을 전시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다양한 유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고고실의 전시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
까지 전북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역사
와 문화를 만들고, 다시 외부의 세력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과 ‘마한, 그 시작’, ‘마한에서 백제
로’, ‘고대국가의 완충지 전북’,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
백제’의 다섯 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1부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

구석기와 신석기시대 유물을 새롭게 선보인다. 많은 수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임실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일대와 군산과 고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를 쓰임새별로 알기 쉽게 전시하였다. 그리고 토기와 낚시 바늘, 갈돌과 갈판 등을 전시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된 전북 신석기인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청동기시대 사회의 특징적인 무덤인 고인돌과 그 속에서 확인된 간돌검, 붉은간토기 등을 전시하여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2부 '마한, 그 시작'

기원전 2세기경부터 중국 연(燕)나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철기와 이전 시기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한 한국식동검문화(韓國式銅劍文化)를 살펴볼 수 있다. 전북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부장된 무덤이 많이 확인된다. 특히 이번 전시 개편에는 완주 신평 유적 등 전북 혁신도시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精文鏡)과 한국식동검(韓國式銅劍), 장대두검 방울(靑銅竿頭鈴) 등의 출토품을 한 자리에 모아 국내 최대의 청동기 출토지인 전북을 부각하였다. 세밀한 문양을 새긴 잔무늬거울을 비롯하여 일부러 깨뜨려 넣은 청동기에서 당시의 관념과 고도화된 기술력, 그리고 고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힘이 전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부 '마한에서 백제로'

백제로의 편입 이전과 이후의 유적을 비교·전시하였다. 전북 지역의 마한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5세기 대에 본격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위상을 가진 마한 세력이 대외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창 봉덕리 1호분과 익산 입점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金銅飾履)과 금동관(金銅冠) 등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창 봉덕리 흙무지무덤(墳丘墓)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과 작은 단지로 장식한 구멍항아리(小壺裝飾有孔廣口壺), 중국제 청자항아리(靑磁盤口壺) 등의 일괄 유물을 처음으로 함께 공개하였다.



4부 '고대국가의 완충지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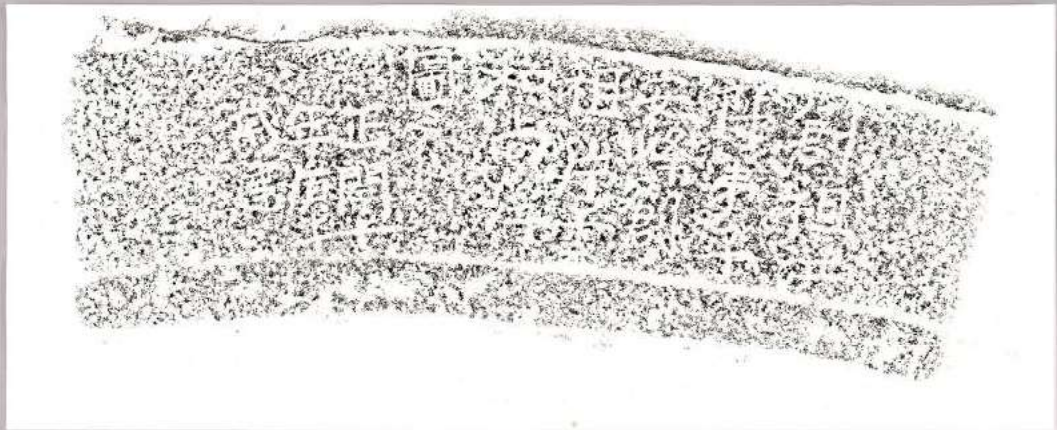
전북 동부 지역의 가야와 부안 죽막동 해양제사 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는 5세기 초반에 소가야(小加耶), 그리고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大加耶)가 등장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야의 토기와 무기, 마구를 비롯하여 남원 월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닭머리 모양 청자(靑磁鷄首壺)와 쇠자루술(鐵製鏹斗) 등의 뛰어난 위세품, 그리고 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백제와 신라 토기 등을 함께 전시하여 가야와 백제, 신라가 융합하는 역동적인 전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형 독립장에 동아시아 고대 해양제사의 중심지인 부안 죽막동 유적 출토 유물을 전시하여, 4면에서 해양 제사가 시작된 3세기경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변화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해양 제사가 이루어진 중심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 대가야와 교류가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제사를 위하여 특별하게 만든 부안 죽막동의 토기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부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

전주(全州)가 한 나라의 수도였던 후백제를 조명하였다. 후백제는 통일신라 말인 892년 무진주(武珍州, 오늘날의 광주)를 중심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후 900년에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후백제(後百濟)라는 국호를 정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남의 광양 마로산성, 광주 무진고성 출토품 등을 전시하여 후백제 초기의 모습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전주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전주성(全州城)' 글자가 찍힌 기와와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에 새겨져 있는 후백제의 독자적인 연호인 '정개(正開)' 탐본 등을 전시하여 후삼국(後三國) 중 37년 간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후백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 탐본

創祖洪陟弟子 (실상사를)창건한 조사 홍척의 제자이며

安峰創祖片雲和尚浮屠 안봉사를 개창한 편운화상의 부도이다.

正開十年庚午歲建 정개 10년 경오년(910년)에 세운다.

이와 같이 국립전주박물관의 새로운 고고실에서는 시대를 아우르는 주제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하여 전북의 선사·고대 역사를 폭 넓게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유물 중에서 역사적·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중요 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북 고대문화의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다.

고창 봉덕리 금동장식신발



1



2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국립전주박물관 고고실에는 전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품이 많이 전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바로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金銅飾履)이다.

고창 봉덕리 1호분은 네모난 모양의 큰 흙무지를 쌓은 후 그 정상 부분에 돌방무덤(石室墳) 5기와 독널무덤(甕棺墓) 2기를 만든 마한 특유의 흙무지무덤(墳丘墓)이다. 1호분의 동남쪽에 위치한 4호 구덩식돌방무덤

(竪穴式石室墳)에서는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금동장식신발 한 켤레가 출토되었다. 이 금동장식신발과 함께 은제 대나무잎 모양 장신구, 금제 귀걸이, 곡옥이 달린 목걸이, 옷칠한 화살통, 큰 칼, 중국제 청자항아리, 작은 단지로 장식한 구멍항아리, 철기를 만드는 도구(鍛冶具)와 다양한 토기류, 마구류, 철제 무기류가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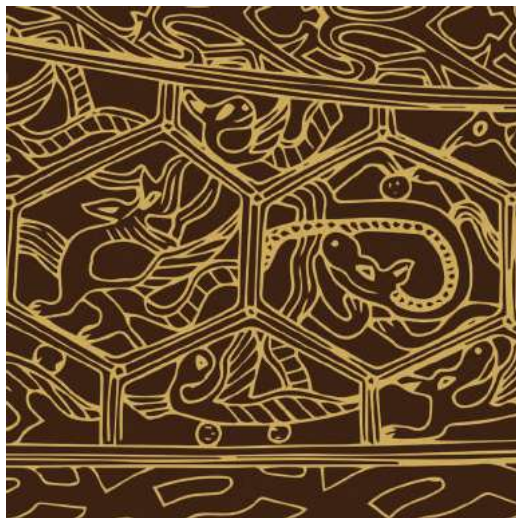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 고고실에서는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과 함께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금동장식신발은 발목 부분에 금동판을 덧대고 금동뭇으로 고정하는 것이 특징이며, 옆판 2장과 바닥판, 발목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옆판은 세로로 크게 3등분하여 주문양대와 보조문양대로 나누고 투조와 압출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주문양대에는 육각형 모양의 거북이 등갑질 무늬(龜甲文樣)를 반복하여 배치하고 그 안에 용무늬(龍文樣)와 인면조신무늬(人面鳥身文樣), 쌍조무늬(雙鳥文樣) 등을 정교하게 새겨놓았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작은 원형으로 사람 얼굴 무늬를 새겨 놓아 백제인의 해학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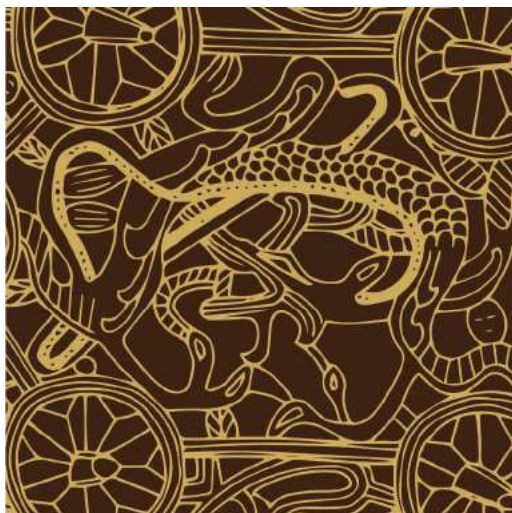
1 고창 봉덕리 1호분 조사 후 전경

2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3 금동장식신발



옆판의 주문양대



바닥판의 용무늬



바닥판의 귀면무늬



바닥판의 역사상

바닥판에는 원형의 연꽃잎무늬가 주위에 둘러진 18개의 스파이크가 있고, 중앙에는 꿈틀대는 한 마리의 용을, 앞쪽에는 귀면무늬(鬼面文樣)와 뒤꿈치 부분에는 역사상(力士象)을 역동적으로 새겨놓았다.

이러한 금동장식신발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실용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약해서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 지역에서 확인되는 금동장식신발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어 백제의 중앙에서 이것을 만들어 각 지역의 수장들에게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 개편에서는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의 디지털 돋보기를 함께 제작하여 신발에 새겨져 있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제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였던 5세기 고창 마한 세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교도소와 고토성(古土城)





사진(1948년 촬영) 한 가운데 있는 건물이 바로 전주교도소이다. 1908년 지금의 전주시 진북동 322번지에서 대한제국의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이르러 전주형무소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61년에 전주교도소로 개칭되었다. 비록 70여년 전의 사진이지만 교도소의 담장과 문, 내부 건물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교도소 바깥으로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담장 주변을 돌아가면서 제방처럼 꼭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토성의 성벽이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흙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석성(石城)과 달리 형상과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후백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토성으로 추정된다. 즉 도성의 북쪽지역을 전담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쌓은 성으로 보고 있다. 1972년 전주교도소가 평화동으로 이전하면서 원래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축조연대(築造年代)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견훤(867~936)이 쌓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쌓았던 것을 후백제가 도성의 방어시설로서 재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감 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듯 사람들의 가슴에도 이 살가운 봄바람이 살랑이며 들어와 봄이란 계절에 눈을 뜬다. 그 때쯤 우리는 봄이 찾아왔음을 실감하곤 하는데, 많은 청춘들은 이 살가운 바람이 유혹하는 순간을 일명 ‘봄을 탄다’라고 가정하면서 감정을 소모하고야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봄이 오면 유독 연애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 고백을 하고 받는 기념일도 봄에 집중적으로 있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다. 봄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입춘(立春)을 기점으로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라든지 화이트데이(White Day)라든지 고백을 하는 날들이 줄지어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러한 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아닐는지 싶다. 이렇듯 고백데이(Day)에는 주로 남녀가 서로에게 초콜릿과 사탕을 주면서 마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필자는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왜 하필 음식을 주면서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사랑의 달콤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단 음식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이와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가 그저 달콤함이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만은 아닌 게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한 인디언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는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음식이라는 기호가 상징하는 ‘먹다’라는 행위가 ‘살다’라는 생명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인 식욕을 토대로 하는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듯 음식을 통한 원초적 사랑 표현은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 사랑을 연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순수하고 원초적인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한 작품 한 편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바로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이다.

나를 켜 감지.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중략)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겹개를 활금활금 돌아보더니 횡두침마의 속으로 찢던 바론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붙씩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책 끼치는 굵은 감자. 새 게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겹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뜬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몸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은썩은 하고 실상치 않게 습소리가 겹겹 거칠어진다. 이젠 또 뭐야. 싫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럿것 가꾸잡잡한 껍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부처럼 새빨개진 편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을 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얼어붙 듯 자빠질 듯 눈두루리로 뿔뿔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김유정 「동백꽃」 본문 中



소설 「동백꽃」에서는 주인공 서술자인 ‘나’와 점순이가 등장한다.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마름의 여식으로 둘은 상하관계에 놓여있다. 어느 날 서로 데면데면하던 점순이가 ‘나’에게 다가와 감자를 건네고 ‘나’는 그런 점순이의 호의를 무시한다. 이후 점순이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닭을 데려와 ‘나’의 집에서 키우는 닭과 닭싸움을 시키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나’는 그런 점순이에게 당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닭을 때려죽이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점순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약속하고 화해하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이 소설에서 사건의 시발점이자 ‘나’와 ‘점순이’ 사이를 애증으로 이끄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감자이다. 감자는 안데스 산맥을 원산으로 온대지방에서 널리 재배되는 작물로 우리의 식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다. 주로 반찬재료나 간식거리로 이용되는 감자는 맛이 있어서 모두가 즐겨먹는 음식이다. 그러나 맛과는 다르게 생긴 것은 울퉁불퉁 둥그랗고 색도 밋밋하기 그지없어 외관상 멋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감자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니 이게 웬 말이나 싶겠지만 「동백꽃」에서는 감자만큼 효과적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음식도 아마 없을 것이다.

우선 이 소설의 배경이 1930년대라는 점에 주목해봐야겠다. 당시에는 쌀 한 톨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먹을 것 자체가 귀하던 시절이니 달콤한 음식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기에 점순이는 봄날에 자신이 맛본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을 짝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자였던 것이다. 이는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건네기 전에 “네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한 대목처럼 당시에 봄감자는 귀하여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 마름의 딸로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점순이는 봄감자를 즐겨 먹었을 것이었으나 소작인의 아들인 주인공 ‘나’는 봄감자를 구경조차 못하였을 것임으로, 점순이는 자신의 짝사랑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최고의 별식으로 감자를 선택한 것이었다. 점순이가 봄감자를 맛있게 먹었던 것처럼 짝사랑 대상인 주인공 ‘나’도 봄감자를 맛있게 먹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음식을 통한 고백을 준비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 순간 감자는 그냥 음식이 아닌 소녀의 순정과 순수한 사랑이 함축된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소설에서만큼은 감자처럼 로맨틱한 음식도 없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소녀의 마음이 감자를 통해서 일종의 고백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몰래 먹으라는 비밀스런 메시지와 함께 수줍음까지 더하였으니 봄감자가 어찌 달고 맛있지 않을 수 있을까? 소설에서는 흔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고백의 말 따위보다 더욱 순수하고 설레게 마음을 전하게 되는 표현이 감자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감자가 전하는 외관상처럼 순박하고 순수한 첫사랑의 풋풋함까지 느낄 수 있으니 소설에서 감자라는 음식이 전하는 의미의 효과는 크다. 물론 소설은 극의 흥미를 위해 주인공 ‘나’가 봄감자를 거부하면서 마음을 거절당한 점순이의 복수극으로 치달기는 하지만 감자를 통한 고백을 기점으로 결국 둘을 이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에서만큼 감자는 그 어떤 로맨티스트의 작업엔트보다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계절이 갈수록 따스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봄철은 시기상으로는 사랑을 하기에 최적의 아닐까 한다. 아직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이가 있거나 옆에 소중한 이가 있다면 맛있는 봄감자라도 건네면서 장난스럽게 이 한마디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 혹시 또 모르지 않나~ 점순이처럼 한 번 실패는 했지만 막판에는 이 음식을 통한 사랑고백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영화 <취화선>과 경주 양동마을

세속적인 삶을 초월한 천재화가 오원(吾園) 장승업의 불꽃같은 인생을 그린 영화 <취화선(醉畵仙)>은 2002년에 개봉된 영화이다. 도올 김용옥교수가 각본을 쓰고 임권택 감독이 맡아서 완성하였는데, 최근 <명량>이란 영화로 천만 배우의 반열에 오른 최민식이 주인공인 장승업役に 혼신을 불태운 영화이다. 더욱이 주변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19세기 말기 조선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를 살아가던 힘없는 예술가의 애잔한 모습을 비추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더욱 여운이 오래 남는다.

영화 <취화선>의 내용은 어린 장승업이 서울 청계천 부근의 거지패에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선비 김병문(안성기 역)이 그를 구해주게 되는 운명적인 장면부터 시작된



다. 얼마 후 다시 장승업을 만나게 된 김병문은 그를 역관인 이응헌(한명구 역)에게 소개하며, 장승업은 이응헌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화가나 수장가들의 화첩 등을 훑쳐보며 틈틈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다. 김병문은 장승업의 재능을 알아보고 선대의 명화가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라는 뜻에서 오원(吾園)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오원은 타고난 재능으로 최고 화가의 명성을 얻으며, 궁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천성이 자유분방한 그는 엄한 궁궐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다. 결국, 오원은 일체의 세속적인 관습이나 화풍의 구속을 벗어난 채 살아간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술에 취해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싶을 때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그런 그를 이해해 주는 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자 물락한 양반가문의 딸인 기생 매향(유호정 역)뿐 이었다. 장승업은 화가로서 명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드디어 온 몸의 기가 붓을 타고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끼다. 매향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오원은 자신이 그토록 도달하려던 경지에 오르지만 홀연히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취화선>은 제55회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적인 정서를 잘 담아 낸 명작으로 세계가 인정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명배우 소피마르소는 ‘무인도에 가져갈 영화 10편 중 하나’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림에 취한 신선’이라는 뜻의 이 영화는 아산 외암마을과 순천 선암사, 인천 석모도 뱀발, 하동 백련리도요지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에서 촬영되었다. 특히, 지붕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나 천둥치고 폭우가 내리는 깊은 밤에 괴성을 지르며 마당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오원의 혼란스러운 내면적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한 곳이 바로 양동마을에 있는 심수정(心水亭)이란 운치 있는 한옥이다.

경주 양동마을은 혼인을 통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들어온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집안이 번성시킨 마을로서 중요민속자료 제189호이다. 150여 호의 고가옥과 초가집이 있는데,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로 지난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하다. 마



을은 전체적으로 설창산(161m)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산등성이에 지은 집들로 이루어진 산촌마을의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고 있어 선조들은 이러한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마을터로 보았다. 양동마을이 양반 씨족마을로서 기반을 다진 것은 양민공 손소(1433~1484), 우재 손중돈(1463~1529), 회재 이언적(1491~1553)과 같은 인물이 배출된 조선시대 전기이다. 마을 앞으로는 경주 일대에서 가장 넓은 안강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여러 겹의 산줄기가 집들을 감싸고 있어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야만 마을의 규모와 형상을 알 수 있다. 향단·무점당·서백당·관가정·수졸당·이향정·심수정 등 가옥·정자·서원 과 같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화창한 봄날, 경주 양동마을에 가면 <취화선>을 보며 느꼈던 ‘가장 한국적인 마을 공동체의 경관과 정서’를 온몸으로 그리던 장승업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나타날 것만 같다.



여명카메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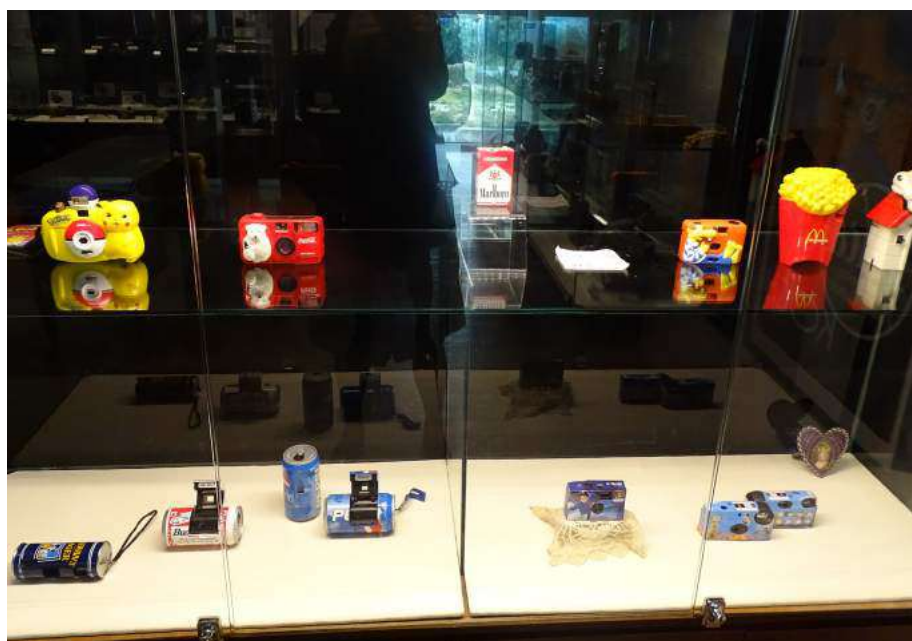
이모저모

옛 카메라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흔적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솟은 전주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여명카메라박물관은 옛 카메라 전문 박물관이다. 포근하면서 고풍스러운 외관을 하고 있는 한옥 내부로 들어오면 근 현대의 상징인 고전 희귀카메라가 다양한 예술미와 이야기를 담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명카메라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희귀 카메라들은 박물관장이 해외에서 직접 수집을 해온 카메라들이다.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찍고 싶은 순간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거나 포토샵으로 연출하는 식의 즉흥적이고 가공적인 것이 아닌 고유의 필름을 이용한 아날로그 카메라들이다. 필름을 끼운 뒤 초점을 손으로 직접 조절해가면서 순간을 담고, 한번 찍은 장면은 바로 볼 수도 삭제할 수도 편집할 수도 없는 수동 카메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 진열되어있는 카메라 브랜드는 일반인에게서는 생소한 명품 브랜드인 이스트만 코닥, 라이카, 샌더슨 등이 구성되어 있다. 500여 종류의 진열된 카메라들은 단순 박제된 카메라들이 아닌 99%가 바로 필름만 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야외로 나가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보관상태가 잘 되어 있는 카메라들이다. 살아있는 카메라들이 언제든지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의 카메라들은 하나하나가 개성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공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대다수여서 요즘과 같이 공장으로 대량 생산해 내는 카메라와는 외관의 품격이 다르다. 예전 카메라 외관 구성재료는 금속, 목재가 주였는데, 주로 고관대작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여서 모서리 한 귀퉁이, 작은 부품 하나까지 카메라 장인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어 명품카메라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의 생명은 외관도 외관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기능이기때 그 관리와 보관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카메라 하면 역시나 사진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는 사진에 관한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매해 사진을 주제로 한 공모전, 특별전, 기획전을 구성하고 있어서 지역 프로사진작가부터 취미로 촬영하는 아마추어 작가까지 폭넓게 사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전을 통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풍경도 매년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주는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을 잘 찍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큐레이터가 찍어주고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여명카메라박물관만의 인화체험 특징은 한지인화이다. 한지하면 전주한지인 만큼 고급전주한지로 인쇄 해줘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전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사진 강좌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놓아서 관장이 교육기부로 사진강좌 교육도 하고, 전문사진학 교수도 초청하여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있다.

여명카메라박물관은 카메라, 사진 볼거리를 주로 선사하지만, 또 다른 볼거리도 많다. 그 중 렌즈로 보는 사진, 회화 전시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다. 암상자에 작은 렌즈를 설치해서 회화 작품을 관람하는 색다른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는 눈으로 추억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귀로 추억을 들을 수도 있다. 본 박물관은 만 여점이나 되는 과거의 음악을 담은 LP판을 소장하고 있고, 그날 그날 전자축음기로 LP판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디지털시대 mp3파일에서 나오는 디지털음악에 익숙해진 현 세대에게 과거 아날로그기기가 들려주는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놓았다.

특히 세계소리축제때는 19세기에 제작된 오리지날 축음기를 통해 직접 LP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으니 축제 때 방문하면, 누구나 19세기 당시의 흘러 나왔던 음악을 21세기에 감상할 수가 있다.

기타 즐길거리로 공연공간과 정원도 있다. 영화제, 세계소리축제와도 협약을 맺어서 축제날에는 공연공간을 통해 무료 소리공연, 영화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지역축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과거의 아날로그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면 전주한옥마을 속 여명카메라박물관에 방문해 보는건 어떨까?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시간 : 10:00 ~ 18:00

입장료 : 3,000원 (음료 및 엽서 포함)

여명카메라 박물관

김도현 학예연구사인터뷰



Q. 여명카메라박물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어릴 때 교동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어서 놀러 다니곤 했었죠. 당시엔 교동 지역이 한옥마을이란 것도 모른 채 근처에서 놀곤 했는데 한옥마을에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문화시설이 들어서더니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가더군요. 이제는 전주의 얼굴하면 한옥마을인 만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전주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싶어서 한옥마을안의 문화공간의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카메라 박물관과 인연이 되었지요.

전통한옥과 카메라는 어울리지 않을 거 같았지만 옛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직원들도 가족 같이 대해줘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여명카메라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과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명카메라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은 1840년에 만들어진 다게레오 캐논과 다게레오 카메라입니다. 모든 박물관이 그렇듯이 대표유물이라면 역사성, 가치성, 희소성, 보존성이 중요할 텐데요. 다게레오 캐논과 카메라는 이곳 카메라들 중 가장 오래되었고, 최초 금속 카메라이며, 그 수가 전 세계에 12점만 남겨져있고 그 중 하나가 전주에 온전하게 소장 중이니 카메라박물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유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스파이 카메라입니다. 전쟁이란 아픈 과거가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상황 중에 하나가 과학문명의 진보이지요. 전쟁 중 발전된 카메라기술을 스파이카메라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첩보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크기가 작아진 스파이카메라를 통해 당시 인류의 비극과 기술의 진보란 상반된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Q. 그간 박물관 업무 가운데 가장 생각이 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프로그램 중엔 큐레이터가 찍어주는 사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번은 멀리 경상도에서 오신 관광객들께서 한복 입은 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셨고, 제 실력과 무관하게 한복과 한옥이 정말 잘 어울리게 사진이 나온 겁니다. 뜻밖의 수확에 관광객들은 너무 좋아해주셨고, 전주에 대해 물어봐서 저는 마치 전주홍보도우미가 된 기분으로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었죠. 잠시 관광객들에게 내가 전주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지요.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요?

아직 시작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정한 것이 없지만 큰 틀로 생각해 놓은 것은 전북의 콘텐츠를 알리는 전시·교육기획이 꿈입니다. 역사가 깊은 전북의 콘텐츠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무궁무진하지요. 장르에 구애 없이 전북인들에게 추억과 향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전시·교육기획을 이루고 싶어요.



살아오신 과정을 서예로 표현하듯
'투혼(鬪魂)'을 좌수악필로 쓰는 모습



금강봉래풍악개골 / 1991

예향(藝鄉) 전주는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이자, 석전(石田) 황욱(黃旭)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서예가가 배출된 곳이다. 석전 선생은 자기 극복과 정진으로 독특한 서예세계를 보여준 투혼의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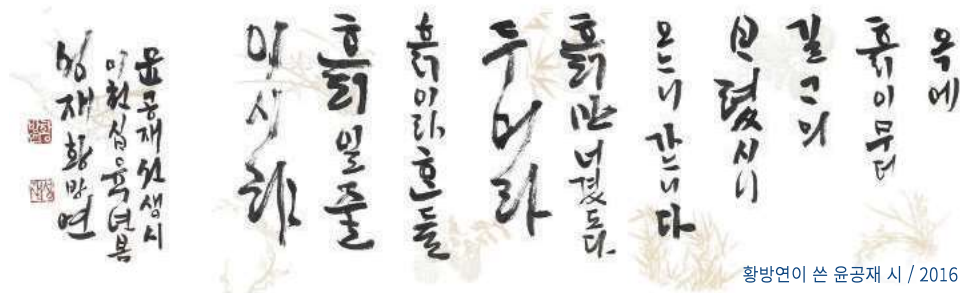
석전石田 선생

홍상제막식 및 황병근 선생

기증유물특별전 II



황병근 선생 수집품 / 18세기 / 윤순이 쓴 금지목서



황방연이 쓴 윤공재 시 / 2016



석전石田 선생 흉상 / 2016년 / 전북대학교 엄혁용 교수 작

국립전주박물관은 1997년에 석전 선생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아들인 유당(由堂) 황병근(黃炳根) 선생이 석전 선생의 유작과 유품, 그리고 본인이 수집한 문화재를 5천 점이 넘게 기증한 것을 기념하여 1999년에 ‘황병근 기증유물특별전’을 열었다.

올해는 석전 선생이 돌아가신 지 23주기가 되는 해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석전 선생의 흉상 제막식과 더불어 ‘황병근 선생 기증유물특별전 II’를 마련하였다. 전시품은 석전 선생의 서예 작품을 중심으로 서맥을 잇고 있는 손자 성재(醒齋) 황방연(黃邦衍)의 글씨, 황병근 선생이 수집한 유물들로 구성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전복의 서예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문화재를 소유하기 보다는 공유한 황병근 선생께 감사드리며 이런 마음이 모여 우리의 문화가 지켜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 강소성 소주박물관

소주는 2,5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호수와 운하가 많아 아름답고 서정적인 곳으로 유명하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라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으며, 13세기 이 도시를 방문한 베네치아 출신 여행가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자신의 저서인 <동방견문록>에서 ‘동양의 베니스’(베네치아)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소주는 춘추전국시대에 ‘오월동주(吳越同舟)’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오(吳)나라의 도성이 되었으며, 기원전 473년 월(越)나라에 속하게 되고, 다시 초(楚)나라에 합병되었다.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후, 삼국시대 오나라가 잠시 소주에 도읍을 정하기도 했다.



소주박물관 전경

지금의 소주라는 명칭은 강소성(江蘇省) 서쪽에 있는 고소산(姑蘇山)에서 유래되어 수(隋: 581~618) 문제가 중국 남부를 통일한 개황 9년(589)부터 소주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소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수·당대 안사의 난(안사지난, 755~763)을 전후하여 수대에 대운하가 개통된 때이다. 장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어 강남의 무역,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당 몰락 후의 정치적 분열기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오월(吳越)이라는 독립정권은 오월국은 강남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정책을 펼쳐 오월지역을 당나라 시대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점차 남쪽으로 중국 경제 중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송·원대에도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으며 명대와 청대 초기, 소주의 번영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태호(太湖), 줄정원(拙政園)과 같은 호수와 정원으로도 유명한 이곳을 중국에서는 '정원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정원이 많은데, 중국의 4대 명원(名園) 중 두 곳이나 소주에 있으니 가히 그 명칭이 아깝지 않다.

이러한 소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인 소주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어 소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왔다. 2006년에 소주 출신이며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의 설계자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 밍 페이(I.M.Pei)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그 명성을 더하게 되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미술품과 월주요(越州窯)에서 만들어진 비색청자(秘色靑磁)를 비롯하여 청대까지 이르는 다양하고 화려한 도자문화, 문징명(文徵明)으로 대표되는 명대 오파(吳派)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있다.

1 부처가 새겨진 거울_

송, 소주 운암사 호구탑 출토 1급 유물

2 연꽃무늬 항아리와 뚜껑

복송, 소주 호현경묘 출토

3 동으로 만든 십일면관음보살입상

4 진주사리보당_복제품



2



3



4



졸정원(拙政園)
'정원의 도시'



혁신革新,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국립전주박물관은 2016년 특별전으로 “혁신,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가제)”(2016.5.20~7.17)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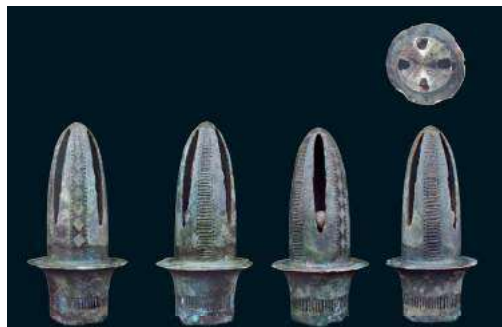
만경강 유역 일대



완주 덕동 유적 출토 구석기 일괄



전주·완주 지역 출토 초기철기시대 유물



완주 신평 유적 54호 토광묘 출토 간두령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개발된 전북 혁신도시는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완주 갈동 유적이거나 완주 상림리 유적, 전주 여의동 유적 등 청동기와 철기가 출토된 중요 유적이 여럿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표 조사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전북 혁신도시 대부분의 지역에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수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기철기시대의 옴무덤(土壙墓)이다.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가 부장된 무덤 100여기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완주 신평 유적을 비롯하여 완주 덕동, 전주 원장동 유적 등에서 이른 시기의 거친무늬거울(粗文鏡)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정교한 잔무늬거울(精文鏡), 쇠물을 부어 만드는 주조(鑄造) 방식보다 발전한 단계인 두드려 만든 단조(鍛造) 방식의 고리자루칼이 확인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대가 청동기와 철기 제작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뛰어난 기술력은 이 지역에서 여러 소국들이 등장하고 이후 마한(馬韓)이 형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전북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완주 지역은 만경강과 그 지류인 전주천이 흐르고 해발고도가 낮아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또한 만경강을 통해 서해안에 맞닿아 있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지역만의 문화로 만들어내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 혁신도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독자적인 문화적 중심지를 형성하며 이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박물관 회원초청 '작은 인형극'

어린이박물관 회원에 대해 알고 있을까?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매년 3~9월 '어린이박물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세 살 유아부터 열세 살 어린이까지 가입할 수 있고 꼭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 시 어린이 나이에 따라 '아우웅'과 '형님웅' 예쁜 어린이박물관 여권을 지급한다. 작년에는 월별 미션을 제공해 다양하게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을 제공하고 수행한 친구들에게는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었다. 또 어린이박물관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올해도 어린이박물관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어린이박물관 회원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따뜻한 봄날 회원들과 가장 먼저 만나게 프로그램은 바로 '작은 인형극'이다. 3월 19일 '망태할아버지가 온다'와 4월 16일 '할머니', 이렇게 두 번의 재미난 인형극을 준비했다.

3월 19일에 극단 문이 공연한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작은 종이컵 속 커다란 상상의 세계를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엄마는 늦게 자면서 왜 나는 일찍 자라고 하지?”

엄마는 밥도 안 먹으면서 왜 나는 꼭 밥을 먹으라고 하지?”

“말 안 들으면 망태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잡아가는 무시무시한 망태 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이지만 공연 후 아이들은 물론 많은 부모님들께서 마음에 와 닿는 인형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인형극을 보며 다양한 종이컵 캐릭터들을 관찰한 어린이들은 공연 후 직접 종이컵 인형극 만들어 손에 들고 돌아갔다.

4월 16일 선보일 인형극 또한 뽀얀 인형극이 아닌 소리와 도구를 이용한 무언극입니다. 극단 누렁소의 '할머니', 부지런한 할머니와 얼렁뚱땅 손녀가 벌이는 소리 없는 손인형극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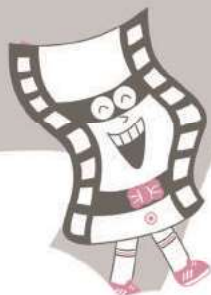
이번 회원 초청 '작은 인형극'의 목적은 단순히 인형극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어린이박물관은 체험전시와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즐거운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박물관을 생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봄나들이 후 아이들과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들러 신나는 체험전시도 관람하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회원가입도 하는 건 어떨까?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국립전주박물관이 활짝 열린다



박물관 무료 관람 그리고 명품 전시해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1

전시관람 시간 연장 저녁 9시까지 박물관 관람이 가능

- 관람시간 : 09:00 ~ 21:00
- 장소 : 모든 전시실 (어린이박물관 포함)

02

전시유물 설명 큐레이터와의 전시유물 설명 및 질의응답

- 3월 30일 16:00 / 고고실
 - 4월 27일 16:00 /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 5월 25일 16:00 / 기획실
-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03

영화상영 시간, 장소 : 17:00 / 문화사랑방

- 3월 30일 : 포레스트 검프 [드라마 / 15세 관람가 / 142분]
- 4월 27일 : 장수상회 [가족, 드라마 / 12세 관람가 / 112분]
- 5월 25일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가족, 드라마 / 전체관람가 / 110분]

5월 야간개장 문화공연

2016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축제’

05.05 PM 10:00-6:00

국립전주박물관 여러 곳

※ 행사내용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야외행사는 기후상황 등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63) 223-5651, 220-1000, 1014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구분	행사	내용	시간	장소
공연 마당	2016년 어린이날 태권도 시범공연	어린이날 기념 태권도 퍼포먼스 스토리가 있는 코믹 난버벌 공연	5:00~16:00	야외 뜨락
체험 놀이 마당	박물관 유물 찾기!	박물관 유물 찾기! 선물 받고!	10:00~11:30	
	Go! ~ Go! 만들고! 꾸미고! 신나고!	브로치 만들기	10:00~11:30/14:00~16:00	
		다용도걸이 만들기	10:00~11:30	
		종이인형 색칠놀이	10:00~16:00	
		태평소 꾸미기	14:00~16:00	
		나만의 방패 만들기	14:00~16:00	
	피에로의 요술풍선	삐에로의 요술풍선 선물	13:00~16:00	
영화 상영	가족영화	비눗방울 놀이	10:00~18:00	강당
		전통민속놀이 체험	10:00~18:00	
		드래곤 길들이기(98분)	11:00	
	역사스페셜	빅 히어로(102분)	14:00	
		아틀(93분)	16:00	
	역사스페셜	역사극장 I ~ IX	종일	문화사랑방

5월 야간개장 문화공연

원숭이의 해 특별공연

‘초인의 비상’



05.07 PM 4:00

국립전주박물관 뜨락

(사)동춘서커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서커스가 예술이 되어 돌아왔다!

전통적인 서커스 곡예에 마술, 무용 등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더했다.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이 선사하는 화려한 볼거리를 온가족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 뜨락 야외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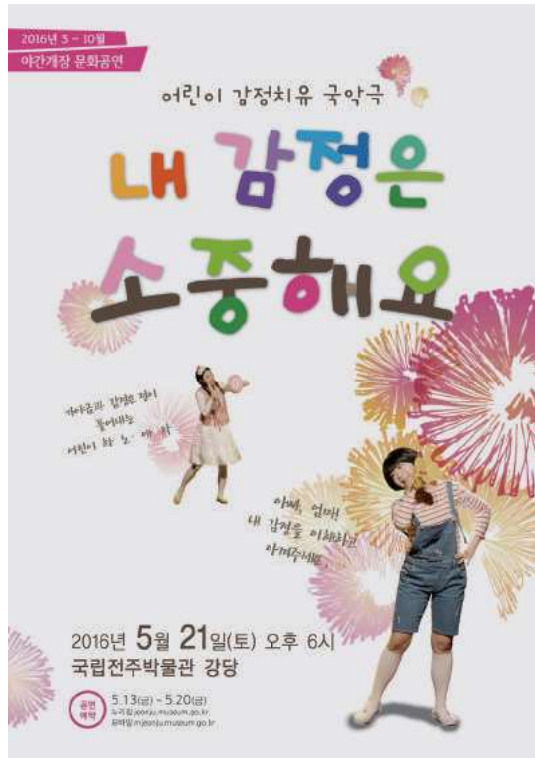
프로그램 | 60분 공연

1. 농구공 묘기 [농구공 25개를 이용 각종묘기]
2. 공중실크 [공중 10공중 10m 상공에서 아크로바틱]
3. 모자 저글링 [모자를 던지며 여러 가지 저글링]
4. 한손 물구나무서기 [한손으로 물구나무서서 각종묘기]
5. 수직줄 [공중 수직줄타기]
6. 두남자의 힘 [초인적인 힘으로 각종묘기]
7. 번검번복 [얼굴의 가면과 옷이 순식간에 교체]
8. 서커스 발레 [발레와 서커스의 접목]
9. 홀라후프 [수십 개의 홀라후프 돌리기]
10. 실패 [5명의 소녀들이 실패 던지고 돌리기]
11. 단지 [머리로 단지 돌리기]
12. 링 체조 [7명의 남자가 링을 향해 비상한다]
13. 공중로맨스 [남녀가 공중을 나르며 각종묘기]
14. 링 위의 링 [토막 난 링 위에서 중심잡기]
15. 비보이집체 [동작 각종체조 무술 커튼콜]

*당일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월 야간개장 문화공연

‘내 감정은 소중한요’



05.21 PM 6:00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극단 공그리기

아이의 감정은 소중한요!

기쁨도 화남도 슬픔도 즐거움도 모두가 소중한 아이의 감정이에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가 감정을 잘 다스려 능숙하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는 사실! 부쩍 감정표현이 많아진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창작공연 ‘내 감정은 소중한요’를 만나보자!

프로그램

1막 기쁨(喜·喜) 다름이가 엄마 칭찬과 선물을 받고는 기쁨이 넘쳐요. 다름이의 감정을 따라서 나타난 감정요정과 함께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즐겁게 알아보면서 신나게 놀아보아요.

2막 화남(怒·怒) 동생 때문에 아빠에게 혼이 난 다름이, 억울한 마음에 화가 많이 났어요. 화난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화난다고 해서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막 슬픔(哀·哀) 제일 친한 친구 소라가 놀아주지 않아 다름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 참아라 어른들은 이야기 하지만 다름이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 바다 끝까지 여행을 다녀와요.

4막 즐거움(樂·樂) 소라와도 오해가 풀리고 가족과도 함께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다름이, 즐거운 마음에 힘이 번쩍번쩍 나요!

안중근의사숭모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손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안중근의사숭모회와 공동으로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손들' 기획전시를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열고 있다. 전시는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소장한 사진자료와 유물 100여점을 중심으로 안중근의사의 유년시절과 고향, 독립대만을 꿈꾸다, 울려 퍼지는 대한, 강압의 중심에서 대한을 외치다, 가족... 그리고 가족..., 대한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 총 6부로 구성하였으며, 잊혀져 가는 순국선열의 애족애민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가 남긴 유물을 감상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의 나라사랑을 느껴보길 바란다.



전시기간_

2016. 3. 22(화) - 6. 3(금)

전시장소_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학교 박물관
진로교육체험 프로그램

박물관에서 '꿈'을 디자인하다

박물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체험에서는 '박물관 속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진로탐색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회당 20명 내외 (중학생)

교육일정 1차 2016.3.2. ~ 4.30. / 2차 7.1. ~ 12.31. 총 10회

교육비 무료

신청방법 전화신청(선착순 접수/063.469.4192)

문의사항 박물관 학예연구1실 063.469.4192



신청기간_

2016. 2. 26(금) -
마감시까지 접수

교육장소_

군산대학교
박물관 전시실 및
교육실



전북대학교 박물관

1. 무료영화상영 목요일시네마 뮤즈

기간 3.10~12.29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관람료 무료(매월 마지막 수 영화상영 직후 소통의 시간 마련)

상영내용

4월 : 추억의 서부 영화		제목	감독	주연	시간
5	4.2	석양의 무법자	세르지오 레오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161분
6	4.9	늑대와 춤을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트너	183분
7	4.16	하이에나	프레드 진네만	게리 쿠퍼	87분
8	4.28	내일을 향해 쏴라	조지 로이 힐	폴 뉴먼 · 로버트 레드포드	110분
5월 : 영화로 보는 세계		제목	감독	주연	시간
9	5.1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기덕	오영수 김기덕	106분
10	5.19	가을의 전설	에드워드 즈웬	브레드 피트 안소니 홉킨스	133분
11	5.26	봄날은 간다	허진호	유지태 이영애	106분

2.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 4월~10월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49학급
체험내용

옛 책, 우리문화를 품다(옛 책 만들기 체험)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다(전시기획 체험)
전북의 예술문화 속으로(병풍·초상화 만들기 체험)

3. 어르신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기간 5월~10월
대상 전북지역 문화해설 자원봉사자(60세 이상) 24명
교육내용 전북지역의 역사·문학·예술 교육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기념

익산시민 소장유물 기록화 및 특별전 유물 출품 안내

익산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평가하고 전시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익산시민 소장유물 기록화(記錄化) 및 특별전> 유물 출품을 요청합니다. 집안에 잠들어있는 유물을 깨워주시면 유물평가자문위원회에서 전시·연구 가치를 평가하여 기록화 및 특별전에 소중하게 사용된 후 되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2016년 5월 1일 ~ 5월 20일

대상유물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민 소장 익산 관련 유물
(도자기, 고문서, 민속품 등)

문의처 원광대학교박물관(063-850-5458),
익산시 역사문화재과(063-859-5789)

※ 유물 출품과 관련된 연락을 주시면 학예사가 직접 방문하고, 출품된 유물은 전문가의 평가와 아울러 특별전 전시 후 반환해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유물 깨우는 방법

집안에 잠들어있는 유물을 찾아본다 → 접수를 해도 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 → 박물관에 전화한다 → 학예사가 직접 방문한다(기증할 유물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할 수도 있다) →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만나러 간다





전시기간_
2016. 3. - 6.30

전시장소_
고창판소리박물관 별관,
군립미술관 무초관

추사(秋史)주련과 진기풍컬렉션 서예대가(大家)展

고창군 문화시설사업소 소속 고창군립미술관(고창판소리박물관 별관)에서는 인촌 김성수 선생 후손들이 기증한 추사 주련 9점, 창암 이삼만 주련 2점 등 11점과, 무초 진기풍 선생이 기증한 서예작품 중 추사와 이삼만의 서예작품을 포함하여 소치 허련, 강암 송성용, 석전 황육, 의재 허백련, 보정 김정희, 소전 손재형 등 서예 거장들의 작품 86점을 전시하는 ‘추사(秋史) 주련과 진기풍컬렉션 서예대가(大家)’展을 3월부터 6월까지 개최한다.

문의 063-560-8061~4



전시기간_
2016. 3. - 6. 30

전시장소_
고창판소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국창(國唱) 만정 김소희 특별전

만정제(晩汀制)의 전승과 미래”展

고창군 문화시설사업소 소속 고창판소리박물관에서는 고창출신 국창 만정 김소희 특별전, “만정제(晩汀制)의 전승과 미래”展을 3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인이 된 만정의 소리를 제자들이 어떻게 전승하고 있으며, 어떻게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만정의 지고한 판소리 전판을 전승하고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각 명창들의 개인 유품, 상패 등 75점의 자료 뿐 아니라, 만정제 세 바탕소리의 전체 음원, 이를 전승하고 있는 안향련, 안숙선, 이명희 등 제자들의 전체적인 음원을 음원 청취기 6대에 총망라하고 있고, 주요 전승자의 공연 동영상 등을 영상패널로 짜임새 있게 전시하여 만정제의 실체와 그 전승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다.

문의 063-560-8061~4

2016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일정

문의 063)220-1015, 1016

분 야	과 정 명	교육기간	대 상	내 용
성인 매개자 (6종)	제17기박물관대학	9~11월	성인	실크로드, 인류문명과 교류(가제)
	인문학 특강	2, 11월	성인	해외전문가 등 관련 강좌
	문화리더 과정	7, 11월	공무원, 교장 등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민, 공무원 등 문화역량 강화과정
	문화매개자 워크숍	5~10월	교사 등	박물관 활용 실무자 워크숍
	교육 실습생 과정	연중	성인	예비 전문가 양성 과정
어린이 가족 (5종)	토요 박물관 가족탐험대	연중	초등 동반 가족	체험 백팩을 통한 가족들 유물탐험 체험
	병아리 그림자 놀이	연중	유아 및 초등 1,2학년	그림자 놀이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 박물관 경험
	전주박물관 나들이	연중	유아 및 초등생	조선 왕실 문화 연계 체험 (일월오병도, 복식 꾸미기 등)
	회원 초청 교육	연중	어박회원	박물관숲, 별빛 박물관 등
청소년 (1종)	청소년 큐레이터	연중	청소년	청소년 진로탐색 과정 (전시기획/보존과학/교육 중 택일)
희망 계층 (3종)	찾아가는 박물관	3~11월	전북 맹아학교	박물관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유물 촉각 체험	4~11월	지적, 시각장애인	지적, 시각장애인 즐거운 유물 경험 (촉각, 청각, 후각 등 활용)
	회화 감상	4~11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회화 감상 과정 *대여 교구재 개발
	어린이박물관	연중		

*희망계층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교육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children/>

2016년 고고학 교실

문의 063-220-1030

대 상 성인 일 정 2016. 4. 23 ~ 7. 2 토요일 14:00-18:00 (2강좌씩 6회)
 장 소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내 용 북방 유라시아의 제사유적과 한반도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